

유럽 세계의 확대 - 신행로 개척

[신행로 개척의 배경]

01. 동방에 대한 호기심 증폭

- 프레스터 존(Prestor John)의 전설
- 마르코 폴로[1254 ~ 1324, 원(元) 생활(1275 ~ 1292)]의 『동방견문록』(1300년경)

02. 동방 산물에 대한 욕구 증대

- 향신료(후추), 비단 등에 대한 수요 증가

03. 동방과 직거래를 위한 새로운 무역 통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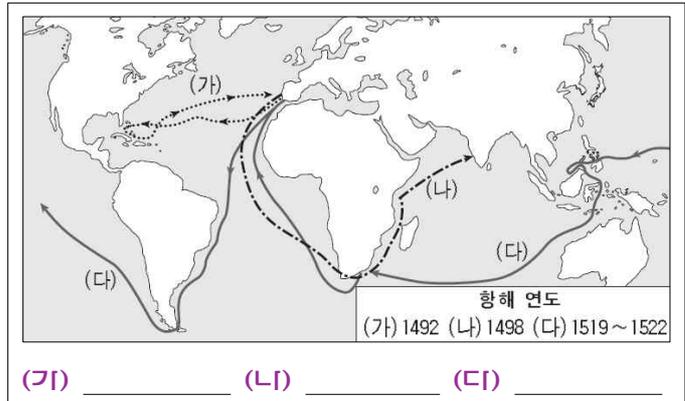
- 이탈리아나 이슬람 상인을 거치지 않고 동방의 산물 수입
- 오스만 제국의 동서 무역 주도로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등 동방 교역로 차단

04. 종교적 동기

- 크리스티교, 새로운 선교 지역 필요

05. 기술의 발달

- 조선술과 항해 도구(나침반) 등 기술의 발달
↳ 원양 항해 가능



[신행로 개척]

01. 이베리아 반도의 국가 주도

- 지중해 무역 소외
- 대서양 진출이 유리한 지역에 위치

02. 신행로 개척

포르투갈	특징	• 상업 지향적	
	인물	엔리케	• 선원 양성, 조선소 설립
		<u>바르톨로메우 디아스</u>	• 희망봉 도착(1488)
	<u>바스쿠 다 가마</u>	• 인도 항로 개척(1498)	
에스파냐	특징	• 정복 지향적	
	인물	<u>콜럼버스</u>	• 대서양 횡단, 서인도 제도 도착(1492)
		아메리고 베스푸치	• 네 차례 중남미 탐험 • 서인도 제도의 신대륙 확인(1503) → <u>아메리카</u>
<u>마젤란</u>		• 카를로스 1세(재위 1516 ~ 1556)의 후원 • 필리핀 세부 막탄(Mactan) 섬에서 사망(1521) ↳ <u>최초 세계 일주</u> (세바스티안 데 엘카노, 1522)	

유럽 세계의 확대 - 신행로 개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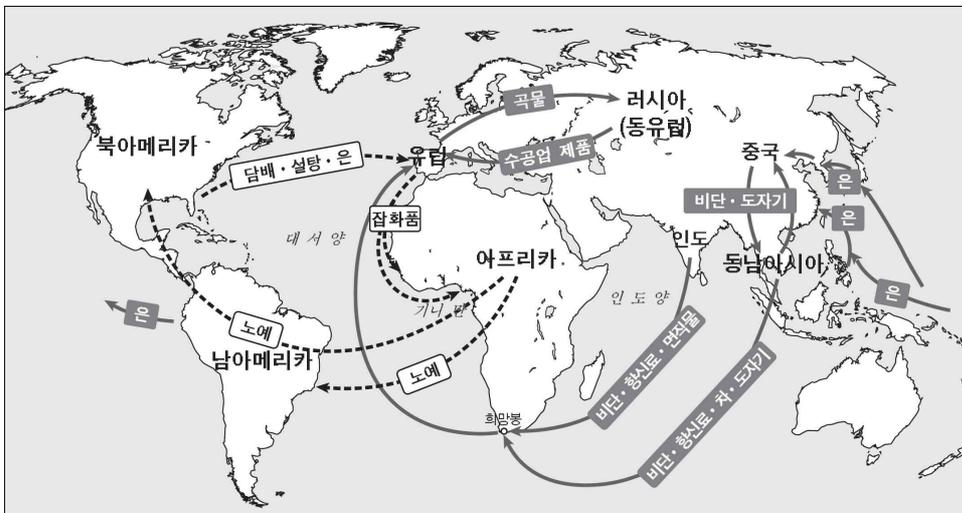
[신행로 개척 이후 유럽인들의 활동]

01. 유럽 세계의 팽창

-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 시작
 - A. Smith(1723 ~ 1790), 『국부론』(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사건, 1776)
- 원료 공급지, 상품 시장 확보 경쟁
 - 에스파냐 → 아스테카(코르테스, 1521) · 잉카 제국(피사로, 1533) 정복, 대농장 건설 및 광산 개발
 - 포르투갈 → 호르무즈 · 고아 · 마카오 등의 무역 기지를 건설하여 향료 무역 전개

02. 세계적 교역망의 통합

- 동인도 회사[영국(1600), 네덜란드(1602)]의 활동 → 교역의 활성화
- 중국산 비단 · 자기 · 차, 인도산 면화의 유럽 유입 → **★막대한 양의 은(銀)이 중국 · 인도로 이동**
 - 일조편법(明, 1573), 지정은제(淸, 1661)의 시행 뒷받침



[신행로 개척 이후 경제적 변화]

01. 무역의 중심지 이동

- 지중해 → **★대서양 삼각 무역 체제(유럽 ~ 아메리카 ~ 아프리카)** 성립

02. ★가격 혁명(Price Revolution)

- 아메리카 대륙의 금(金), 은(銀, 볼리비아 포토시 은광) 등 귀금속의 유럽 유입
 - 유럽의 물가 급등 → 봉건 지주 타격, 신흥 시민과 농노의 지위 향상

03. ★상업 혁명(Commercial revolution)

- 상공 시민들의 해외 시장 개척 → 근대적인 기업, 금융 제도 등을 통해 대자본 형성
- 길드 해체, 선대(先貸)제 · 매뉴팩처(Manufacture) 생산 방식 →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

신항로 개척 후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세계

[아메리카의 세계]

01. 마야(Maya) 문명

- 유카탄 반도 **치첸이트사** 중심
- 피라미드형 신전 건축, 달력, 그림 문자, 0과 20진법 사용

02. ★아스테카(Aztec) 문명

- 마야 문명 계승, 15세기에 절정
- 멕시코 고원 일대, **테노치티틀란(수도)** 중심
- 피라미드형 신전 건설, 달력, 그림 문자 사용
- 에스파냐 **코르테스의 침략으로 파괴(1521)**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

03. ★잉카(Inca) 문명



<마추픽추의 계단식 농경>

- 12세기 안데스 고원 지대, **쿠스코(수도)에 거대한 태양 신전 건설**
- **키푸 문자(= 결승 문자)**, 새끼줄 매듭을 통해 정보 교환
- 점을 쳐서 국가 중대사 결정
- 잉카의 길(전국적인 도로망 구축)
- 계단식 농경으로 옥수수, 감자, 토마토 등 경작
- 에스파냐 **피사로의 침략으로 파괴(1533)** → 마추픽추 보존

04. 에스파냐의 아메리카 지배

- 엔코미엔다(Encomienda) 제도
: 국왕이 임명한 총독과 지방 장관(**코레히도르**)이 통치권 행사
- 강압적 통치와 살육, 천연두 등 전염병의 유입으로 **원주민의 수 급감**
: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통해 노동력 보충 → 사탕수수과 담배 등을 생산하는 **대농장 운영**
- 로마 가톨릭교회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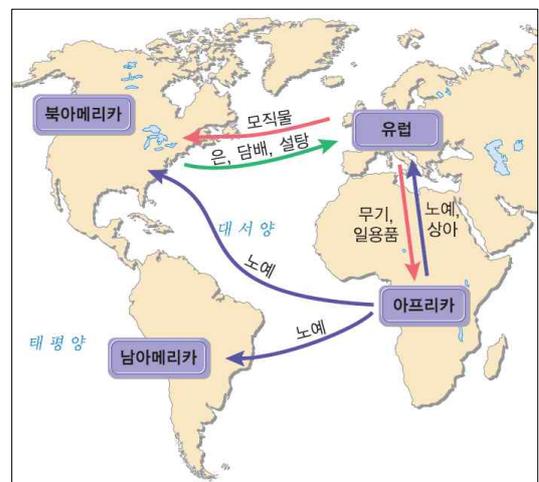
[아프리카의 세계]

01. 노예무역(slave trade)

- 8세기 이슬람 상인의 시작
- 15세기 포르투갈 상인이 주도
- 네덜란드, 에스파냐, 프랑스, 영국 등이 가담

02. 대서양 삼각 무역(Atlantic Ocean Triangular Trade)

- 아메리카 ~ 아프리카 ~ 유럽, ★**노예무역 성행**



<대서양 삼각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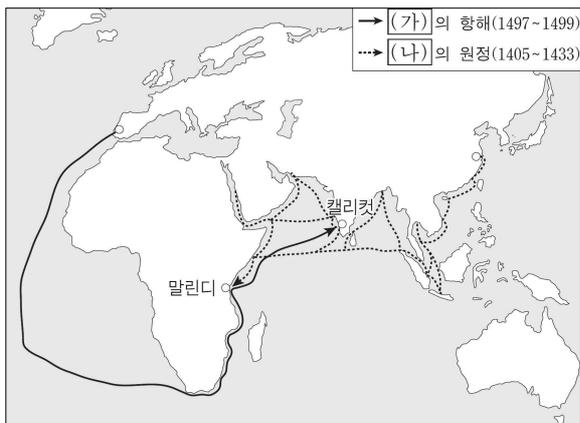
개념 Check

- ① 유럽의 신항로 개척은 대서양 진출에 유리한 지역에 위치한 포르투갈과 ()가 주도하였다.
- ② 에스파냐의 후원으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에 도착한 ()은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그러나 남은 일행은 항해를 계속하여 1522년에 귀환함으로써 세계 일주에 성공하였다.
- ③ 에스파냐의 코르테스 일행은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하여 () 제국을 정복하였다.
- ④ 아메리카의 금, 은 등 귀금속이 대량으로 유럽에 유입되어 물가가 급등하는 ()이 발생하였다.
- ⑤ 신항로 개척 이후 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를 잇는 대서양 ()이 발달하였다.

실전문제

01

다음 (가),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 희망봉을 처음 발견하였다.
- ② (가) - 포토시 광산을 개발하였다.
- ③ (나) - 델리를 방문하고 『여행기』를 남겼다.
- ④ (나) -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조공 국가로 만들었다.
- ⑤ (가), (나) - 삼각 무역 체제를 수립하였다.

02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6월 모의평가]

(가)의 국왕은 식민지의 광산 소유주들에게 광산 채굴에 원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포토시의 코레히도르는 그들을 위하여 쿠스코에서 타리하, 토미나 등 변경에 이르는 모든 지방에서 원주민을 모아들였다. 징발된 원주민은 매주 월요일 아침에 각자 배정된 광산으로 들어간 뒤 토요일 저녁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은 광석을 채굴하고 운반해야만 하였다.

- ①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인도를 지배하였다.
- ② 콜럼버스의 대서양 횡단 항해를 후원하였다.
- ③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 분할에 참여하였다.
- ④ 콜베르를 등용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⑤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에 승리하여 발트 해로 진출하였다.

절대 왕정의 성립과 발전

▶ 유럽 근대의 흐름

중세 봉건 사회 말기	절대 왕정	근대 시민 사회
[강력한 군주의 필요성 대두] ① 봉건 질서 동요 ② 상공 시민 세력의 성장 ③ 사회 혼란 : 흑사병(14 ~ 15세기) : 왕위 계승 분쟁	[절대적 권한을 지닌 군주 출현] ① 서유럽(16세기), 동유럽(17세기) ② 전제 정치적 요소, 봉건적 잔재 유지 ③ 시민들 주도로 초기 자본주의 성장 : 국왕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④ 근대 문화의 토대(17 ~ 18세기 문화)	[부르주아리의 참정권 확대] ① 시민 혁명(정치적) ② 산업 혁명(경제적) ③ 근대 문화의 완성(19세기 문화)

[절대 왕정(absolutism)]

01. 성립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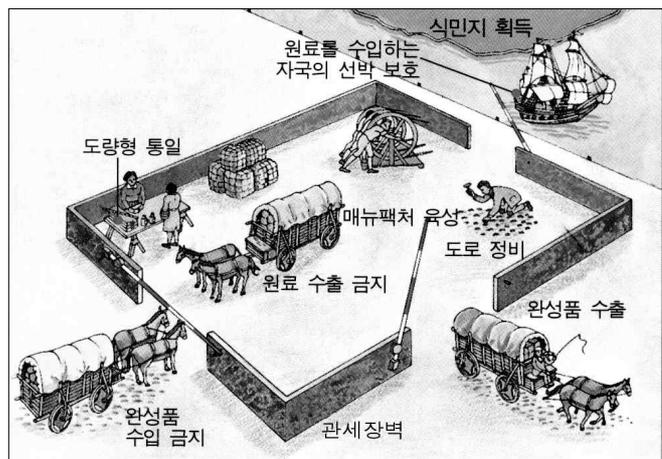
- 16 ~ 18세기 유럽 각국의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 체제 발전 과정에서 등장
- 중세 봉건 국가에서 근대 국민 국가로 가는 과도기에 성립

02. 기반

- 국왕을 중심으로 관료제와 상비군 정비
-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divine right of kings, 보쉬에 · 보댕) 유행
 ↳ 권력의 정당성 확보
- 시민 계급의 재정 지원

03. ★중상주의(mercantilism) 경제 정책

- 절대 왕정의 재정적 기초 마련
 : 국왕의 품위 유지
 : 관료제, 상비군 운영
- 경제 활동 전반에 걸친 국가의 간섭 · 통제
 : 초기 중금(중은)주의 정책
 ↳ 금 · 은 등 귀금속을 국부의 원천으로 인식
 : 국내 산업의 육성과 보호
 ↳ 완성품의 수입과 원료의 수출 금지
 : 관세 장벽
- 매뉴팩처, 선대제(先貸制) 수공업의 생산 방식
- 적극적인 식민지 획득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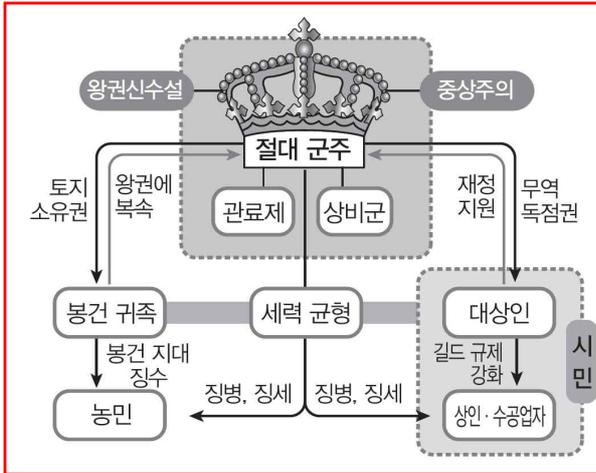
<중상주의의 경제 정책>

04. 특징

- 국왕이 봉건 귀족과 시민 계층 등 어느 누구에게도 제약 없이 국정을 주도하는 정치 형태
- 절대 군주 → 쇠퇴하는 봉건 귀족과 성장하는 시민 계층 간의 조정자 역할
-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시민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정치 형태

절대 왕정의 성립과 발전

▶ 절대 왕정



모든 공업, 심지어 사치품 공업도 다시 살리거나 새로 세워야 합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보호 무역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생산자와 상인을 수공업 길드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백성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국가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합니다. 국산품의 해상 운송을 프랑스가 다시 맡도록 해야 합니다. **식민지를 발전시켜** 무역에서 프랑스에 종속시켜야 합니다.

- 콜베르가 루이 14세에게 보낸 편지(1644)
(1619 ~ 1683)

[서유럽의 절대 왕정]

01. 에스파냐

1) 성립

- 15세기 신항로 개척을 주도하여 중·남아메리카에 식민지 건설
- 식민지의 귀금속 유입으로 가장 먼저 절대주의 확립

2) 전성기

- ★펠리페 2세(재위 1527 ~ 1598)
: 무적함대(Spanish Armada), 대서양 항로 장악
-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 격파(★1571)
↳ 지중해 해상권 차지
- 포르투갈 병합(1580)

▶ 에스파냐의 포르투갈 병합

펠리페 2세는 포르투갈 국왕이 전사한 틈을 타 1580년 포르투갈을 병합하였다. 이후 포르투갈은 에스파냐의 지배하에 있다가 1640년 프랑스, 영국의 도움으로 다시 독립하였다.

3) 쇠퇴

- 국내 산업의 육성 미비
- 상공업 발달 지역인 네덜란드의 독립 허용(1648)
: 가톨릭 강요 정책과 독립 전쟁(1568 ~)
- 아르마다 해전(對 영국, 1588)
: 무적함대의 패배 → 해상권 상실

절대 왕정의 성립과 발전

[서유럽의 절대 왕정]

02. 네덜란드(『수능 특강』 기술 No!)

- 동인도 회사 설립(1602)
: 적극적인 해외 진출, 아시아·아메리카 지역에서 무역으로 번영
- 수도 암스테르담은 국제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 기능
- 17세기 초 유럽 최대의 해운 국가로 성장
↳ 크롬웰(1599 ~ 1658), 항해 조례 발표(1651)

03. 영국

- 1) 헨리 7세(재위 1485 ~ 1509)
 - 튜더 왕조 개창, 절대 왕정의 기초 마련, 국내 상업 장려
- 2) 헨리 8세(재위 1509 ~ 1547)
 - ★수장법(1534), 의회와 원만한 관계 유지, 해군 육성
- 3) ★엘리자베스 1세(재위 1558 ~ 1603)
 - 통일법(1559)
↳ 영국 국교회 확립
 - 에스파냐의 무적함대 격파(프란시스 드레이크, 1588)
 - 동인도 회사 설립(1600)과 해외 개척
 - 수출 산업 육성(제철·유리·제염), 모직물 공업 육성(제1차 인클로저 운동)

▶제1차 인클로저 운동

영국에서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자 양털을 팔아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주들이 농경지를 목초지로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를 인클로저(enclosure) 운동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몰락한 농민들과 빈농들이 도시로 이동하여 실업자 및 빈민이 되었다. 이를 구제하고자 엘리자베스 1세는 구빈법을 제정하였다.

04. 프랑스

- 1) 앙리 4세(재위 1589 ~ 1610)
 - 부르봉 왕조 개창, 절대 왕정의 기틀 마련
 - 낭트 칙령(1598)과 위그노 전쟁(1562 ~ 1598) 종식
- 2) ★루이 14세(재위 1643 ~ 1715, 태양왕)
 - 프롱드의 난(1648 ~ 1653) 진압
 - 왕권신수설 신봉
↳ ‘집이 곧 국가이다. 왕은 오직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콜베르를 등용하여 중상주의 정책 실시
 - 바로크 양식의 베르사유 궁전 건축(왕실의 권위 과시, 화려한 궁정 문화)
 - 낭트 칙령 폐지(퐁텐블로 칙령, 1685)로 인한 위그노의 해외 망명 증가 등으로 산업 침체
 -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1701 ~ 1713) 등 무리한 전쟁으로 재정난 심화

▶콜베르(1619 ~ 1683)

루이 14세 때 재무 장관으로 프랑스의 국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콜베르가 성공적인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중상주의를 콜베르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절대 왕정의 성립과 발전

[동유럽의 절대 왕정]

01. 특징

- 17세기 중엽 성립
- 평원 지역이 많아 서유럽에 비해 농업 발달
↳ 도시와 상공업 발달 부진(시민 계급의 성장 미약), 재판(再版) 농노제(농노제 강화)
- ★계몽 전제 군주 표방

▶계몽사상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면서 계몽을 통해 모순과 불합리를 타파하여 인간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낙관하였고, 계몽 전제 군주와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쳤다.

02. 양상

1) 프로이센

- ★프리드리히 2세(재위 1740 ~ 1786)
: 계몽사상의 영향, 국가 제일의 공복 자처, 『반(反)마키아벨리론』(1740)
: 행정·사법·교육 제도의 개혁 노력, 산업 장려, 종교적 관용 정책, 상수시 궁전(1747)
: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 슐레지엔 지방 차지
: 제1차 폴란드 분할(1772)

2) 오스트리아(『수능 특강』 지문 기술)

- 마리아 테레지아(재위 1740 ~ 1780)
: 슐레지엔 지방 상실, 제1차 폴란드 분할 참여(1772)
- 요제프 2세(재위 1765 ~ 1790)
: 계몽 전제 군주 자처
: 귀족의 면세 특권 폐지, 농노 해방 등 내정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

3) 러시아

- 이반 4세(재위 1533 ~ 1584)
: 차르(Czar, 황제) 전제 정치 실시, 시베리아 진출
- 미하일 표도로 비치(재위 1613 ~ 1645)
- ★표트르 대제(재위 1682 ~ 1725)
: 서구화 정책을 표방하며 서유럽 기술과 문물 적극 수용
: 상트페테르부르크(= 표트르의 도시) 건설(1703)
: 청(淸)과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1689)
: 스웨덴과 북방 전쟁(1700 ~ 1721)을 통해 발트 해 진출
: 동방정책으로 시베리아 진출
- 예카테리나 2세(재위 1762 ~ 1796)
: 표트르 3세의 왕비에서 황제로, 계몽 전제 군주 자처
: 관료제 강화, 법전 편찬 등 내정 개혁, 농노제 강화
: 흑해 진출, 알래스카 획득, 제1차 폴란드 분할 참여(1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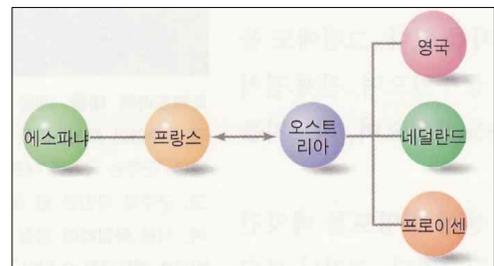
<예카테리나 2세>

절대 왕정의 성립과 발전

[절대 왕정 하의 전쟁(『수능 특강』 기술 No)]

01. 배경

- 국왕이 대규모 군대 동원 가능
- 복잡한 혈통 관계
- 영토 경쟁,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전쟁 발발
- 종교적 이유,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된 전쟁
- 영국, 프랑스의 해외 식민지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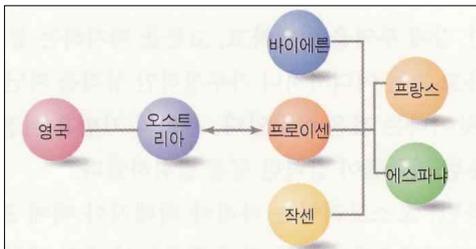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02. 전쟁

1)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1701 ~ 1713)

- 루이 14세 유발
- 위트레흐트 조약(treaties of Utrecht, 1713)으로 전쟁 종결

2)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1740 ~ 1748)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 프리드리히 2세가 유발
- 프로이센의 승리
- : ★슐레지엔 지방 영유

3) 7년 전쟁

- 유럽(1756 ~ 1763)
 - : 프랑스 · 오스트리아 · 러시아 · 스웨덴 ⇄ 프로이센 · 영국
 - ↳ 표트르 3세(재위 1762)의 양보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승리
- 프렌치 · 인디언 전쟁(1755 ~ 1763)
 - : 영국 ⇄ 프랑스, 아메리카 식민지 전쟁
 - : 영국 승리
- 플라시 전투(1757)
 - : 영국군 ⇄ 프랑스군 + 벵골 태수 군대
 - : 인도 식민지 경쟁
 - ↳ 영국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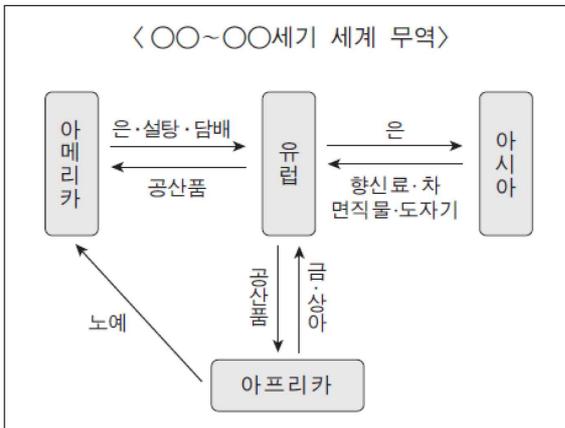
개념 Check

- ① 절대 왕정은 국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라는 ()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 ②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는 ()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격파하였다.
- ③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 궁전을 건축하였으며, ()를 등용해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④ ()의 프리드리히 2세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국가 제일의 공복’임을 자처하였다.
- 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함께 ()를 분할 점령하였다.

실전문제

01

도표에 나타난 무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수능]



- ① 가격 혁명의 배경을 파악한다.
- ② 동인도 회사의 활동을 조사한다.
- ③ 신향료 개척의 영향을 분석한다.
- ④ 대서양 삼각 무역의 구조를 살펴본다.
- ⑤ 상(상)파뉴 정기 시장의 형성 배경을 알아본다.

02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9월 모의평가]

제○○호 **베네치아 신문** ○○○○년 ○월 ○○일

향신료 무역에 먹구름

(가)의 마누엘 국왕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바스쿠 다 가마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의 캘리컷까지 도착하였다. 이는 새로운 인도 항로를 개척한 것으로 우리와 이슬람 상인이 장악하고 있던 향신료 무역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바스쿠 다 가마

- ① 고아와 플라카에 무역 거점을 마련하였다.
- ② 콜베르를 등용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였다.
- ③ 유럽 국가 중 서인도 제도를 최초로 발견하였다.
- ④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대서양 무역을 주도하였다.
- ⑤ 스웨덴과 북방 전쟁을 통해 발트해로 진출하였다.

03

밑줄 친 '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수능]

프랑스어 1세 폐하

저 나라는 일찍이 콜럼버스를 앞세워 새로운 항로 개척을 주도하며 위세를 크게 떨쳐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카리브해를 통과하던 저 나라의 선박 세 척을 나포하였습니다. 두 척에는 금과 은이, 나머지 한 척에는 사탕수수가 가득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제가 확보한 노획물로 좀더 강력한 대포를 구입하여 적들을 제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폐하의 충직한 신하
조반니 다 베라차노 올림

- ① 펠리페 2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였다.
- ② 영국과의 플라시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 ③ 재정복 운동을 통해, 그라나다를 함락시켰다.
- ④ 고아, 블라카 등지에 무역 거점을 개척하였다.
- ⑤ 스웨덴과 북방 전쟁을 통해 발트 해로 진출하였다.

0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8-9월 모의평가]



헨리 8세의 딸인 이 인물은 통일법(령)을 반포하여 국내 정치를 안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력을 크게 강화하였다. 그녀는 아메리카 식민지를 개척하였고, (가)

또한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여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

- ① 무적함대를 격파하였다.
- ② 스코틀랜드를 합병하였다.
- ③ 백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 ④ 인도차이나 연방을 수립하였다.
- ⑤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였다.

04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6-6월 모의평가]



콜베르 경, 관료제와 상비군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전하, 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

보기

- ㄱ. 자유방임 경제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 ㄴ. 케네 등 중농주의자들을 등용해야 합니다.
- ㄷ. 식민지를 개척하여 해외 시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 ㄹ. 사치품 산업을 비롯한 국내 상공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06

밑줄 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6월 모의평가]



드레이크 경, 펠리페 2세의 함대가 무너졌습니다! 신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강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신 것처럼 미천한 해적 출신을 등용하여 중요한 직책을 맡겨 주신 국왕 폐하의 공덕 때문이요, 덕분에 우리가 무적함대를 격파한 것이오.

- ① 심사법을 제정하였다.
- ② 국교회를 확립하였다.
- ③ 가톨릭 해방법을 제정하였다.
- ④ 트리엔트 공의회를 개최하였다.
- ⑤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였다.

근대 철학과 과학 혁명

[근대 철학의 발달]

01. 성격

- 전통적 권위와 편견에서 해방, 주체적으로 사물 인식
- 귀납법(induction), 연역법(deduction) 등 과학적 방법론과 사고방식을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데 적용 → 근대 과학 혁명에 기여

02. 철학가(『수능 특강』 기술 No!)

베이컨(1561 ~ 16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과 실험 중시, 경험론의 토대 마련 • 『노뭉 오르가눔(Novum Organum, = 신기관(新機關))』 저술(1620)
데카르트(1596 ~ 1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공리를 바탕으로 결론을 추론하는 연역법 주장 • 합리론의 토대 마련 • 『방법서설(Discours de la Methode)』(1637)
칸트(1724 ~ 18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론과 경험론의 종합 → 관념론의 토대 마련 • 『순수 이성 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1781)

[과학 혁명]

01. 개념

- 16 ~ 17세기에 일어난 과학의 발전과 세계관의 변화

02. 배경

- 이슬람의 과학과 기술 수용, 르네상스 시대의 학문 발전 → 과학적 사고방식 발달

▶ 기계론적 우주관

우주와 자연계를 신의 섭리가 아닌 일정한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기계로 간주하고, 그 인과 관계를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근대 과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03. 내용

천문학	<u>갈릴레이</u> (1564 ~ 16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여 지동설 입증(1609) • 가톨릭교회의 종교 재판(1633) 회부
	<u>케플러</u> (1571 ~ 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성의 운동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타원 운동임을 밝힘 ↳ 행성 운행의 법칙(1609), 지동설의 수정·발전
	<u>뉴턴</u> (1642 ~ 1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 천체 및 물체의 운동 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 → 기계론적 우주관 확립 •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프린키피아)』(1687)
의학	베살리우스(1514 ~ 15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의 구조에 대하여(파브리카)』 출판(1543)
	★ <u>하비</u> (1578 ~ 16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찰스 1세의 주치의, 혈액 순환론 연구와 과학 혁명 본격화 • 『심장과 피의 운동에 대하여』(1628)

근대 사상의 발전

[사회 계약설(theory of social contract)]

01. 정의

- 17세기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에 대응 → 자연 상태에 살던 개인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합의나 계약을 맺어 국가와 사회가 출현했다고 보는 이론

02. 특징

- 자연법(自然法) 사상을 토대로 발전

▶ 일반 의지(volonte generale)

공동의 선과 이익을 전제로 국가가 갖는 보편적 의지를 가리키며, 단순한 전체의 의지와 구분된다.

03. ★대표 인물

홉스 (1588 ~ 16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으로 파악 ↳ 자연 상태의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 계약을 맺어 자연권을 군주에게 양도 • 『리바이어던(Leviathan)』(1651) → <u>절대 군주제 옹호</u>
로크 (1632 ~ 17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화로운 상태 • 중재자 부재, 재산을 보호받지 못하여 불편 → 계약을 통해 정치 공동체 형성 • 정부 또는 통치자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u>저항권 행사</u> 인정 • 『시민정부론』(1690, <u>명예혁명 옹호</u>), 미국의 독립 혁명·프랑스 혁명에 영향
루소 (1712 ~ 17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일반 의지</u>에 따른 국가 운영, <u>인민 주권의 원리</u> 제시 ↳ 시민 혁명의 사상적 기반 마련

[★계몽사상(enlightenment)]

01. 배경

- 과학 혁명의 성과 + 로크(1632 ~ 1704)의 정치 이론 → 18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확산

02. 내용

- 이성 중시, 미신과 무지 배격, 불합리한 제도와 관습 타파
↳ 사회와 정부를 합리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사회는 진보한다는 믿음

▶ 『백과전서』

“백과전서, 혹은 과학·예술·기술에 관한 체계적인 사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당시의 정치적·종교적 권위에 대한 비판적 서술로 당국으로부터 발행 금지를 당하기도 하였다.

03. 계몽 사상가

볼테르 (1694 ~ 17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용의 원리, 신앙과 언론의 자유 설파 • 계몽 전제 군주의 개혁 지지
몽테스키외 (1689 ~ 17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혁명 이후 영국의 정치 체제 칭송 • ★<u>삼권 분립 주장</u>(『법의 정신』, 1748) → 미국 헌법 제정에 영향
루소 (1712 ~ 17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몽사상의 전성기 주도, 프랑스 혁명에 영향 • ★『<u>사회계약론</u>』·『<u>에밀</u>』 저술(1762)
디드로·달랑베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비판 의식, 당대의 과학과 기술을 집대성한 ★『<u>백과전서</u>』 편찬(1751 ~ 1772) • 계몽사상 보급에 기여



▶ 사회계약설(『수능 특강』, p.101)

- ① 정치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외롭고 가난하고 더럽고 동물적이며 단명한 존재에 불과하며, 서로 상대방과 싸우는 전쟁 상태에 있다. 이러한 무정부와 공포,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정부가 요구되므로, 인간은 개인행동의 자유를 지배자의 손에 맡기기 위한 일종의 합의나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 사회는 또다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인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 홉스(1588 ~ 1679), 『리바이어던』(1651)
- ② 자연 상태는 살기에 불편하므로 사람들은 공동 관심사인 사회와 정부를 세우기 위해 계약을 맺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갖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모든 권리가 잘 보장되도록 정부를 세우는데 합의(계약)하는 것이다. …… 만일 정부가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자해진다면 물러나야 하며, 극단의 경우 혁명으로 타도될 수 있다.

- 로크(1632 ~ 1704), 『시민정부론』(1690)
- ③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오직 본능에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회 계약을 맺는다. 인간은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연적 자유 대신 정의와 도덕에 따르는 법적 자유를 얻는다. 계약을 통해 구성된 국가의 주권은 전체로서 인민에게 있으며, 전체 인민이 통치자라야 한다. 주권은 공공의 복리를 지향하는 초개인적인 일반 의지의 작용이다. …… 즉, 주권이라는 것은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결코 남에게 양도될 수 없다.

- 루소(1712 ~ 1778), 『사회계약론』(1762)

▶ 정치와 경제 사상

구분	정치	경제
17세기	• 왕권신수설, 보댕·보쉬에	• 중상주의, 콜베르
18세기	자연법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로티우스, 국제법 사상 • 홉스, 양도설(절대 왕정 옹호) • 로크, 위탁설 ↳ 미국 혁명에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방임주의 옹호 ■ 중농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네 학파 : 국가의 부의 원천은 토지와 농업 ■ 고전 경제학의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애덤 스미스</u>, 『국부론』(1776) ↳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시장 기능 주도 ↳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주장
	계몽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성과 진보 확산 • 몽테스키외 • 볼테르 • 루소, 사회계약설과 인민주권의 원리 	

17 ~ 18세기의 문화(『수능 특강』 기술 NO!!)

01. 특징

- 중세적 성격 + 근대적 성격
- 절대 군주의 화려함 상징 → 절대 군주의 권위를 빛내는 장식물
- 국민문학(성경의 자국어 번역으로 시작) → 각국의 고전문학으로 정착

02. 예술과 문학

1) 17세기 바로크 예술



- ✓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
- ✓ 화려, 동적, 유동성 풍부, 생명력과 위엄 있는 표현
- ✓ 절대군주의 힘과 권위 존중
- ✓ 장대함, 풍요, 복잡한 장식과 뛰어난 기교
- ✓ 베르사유 궁전(루이 14세)

• 회화

: 궁정화가들이 군주의 권위를 과시하는 작품 발표

↳ 루벤스(플랑드르), 렘브란트(네덜란드)

• 음악

: 바흐·하이든·헨델, 오페라의 출현과 유행

• 문학

: 형식을 중시하는 고전주의 문학 유행

↳ 밀턴의 『실낙원』(1667), 버니언의 『천로역정』(1678)



<렘브란트, 야경>

2) 18세기 로코코 양식



- ✓ 바로크 양식에 비해 세련된 섬세함과 경쾌함
- ✓ 장식성 풍부, 건축·회화 등 여러 분야의 예술 연계
- ✓ 귀족, 부르주아의 향락적인 생활공간 장식
- ✓ 우아, 섬세함, 기교적
- ✓ 상수시 궁전(프리드리히 2세)

• 음악

: 헨델(1685 ~ 1759), 모차르트(1756 ~ 1791), 베토벤 등(1770 ~ 1827)에 의해 고전 음악 발전

• 문학

영국

• 디포(1660 ~ 1731), 『로빈스 크루소』(1719)

• 스위프트(1667 ~ 1745), 『걸리버 여행기』(1721)

개념 Check

- ① ()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1543)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비판하고 지동설을 주장하였다.
- ② 뉴턴은 '()의 법칙'을 통해 자연 현상을 필연적인 인과 법칙으로 설명하였다.
- ③ 사회 계약설은 자연계의 법칙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 사상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 ④ ()는 『사회 계약론』에서 일반 의지와 인민 주권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 ⑤ 루소, 디드로, 달랑베르 등은 『_____』를 편찬하여 당대의 지식을 정리함으로써 계몽사상의 보급에 공헌하였다.
- ⑥ 영국의 애덤 스미스는 『_____』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절되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주장하여 고전 경제학의 기초를 닦았다.

실전문제

01

(가) 인물이 활동하던 시기의 유럽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5-수능]

만물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다. 전체를 동시에 밝혀주는 휘황찬란한 신전이 자리 잡기에 그보다 더 좋은 자리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혹자는 그것을 빛이라 불렀고, 혹자는 영혼이라 불렀고, 또 어떤 이는 세상의 길잡이라 불렀으니 그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가. 태양은 왕좌에서 자기 주위를 선회하는 별들의 무리를 내려다본다.

-(가),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보기

- ㄱ.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사회계약설을 제시하였다.
- ㄴ. 칼뱅이 크리스트교 강요에서 예정설을 주장하였다.
- ㄷ.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삼권 분립을 주장하였다.
- ㄹ.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이상 사회를 묘사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02

밑줄 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9월 모의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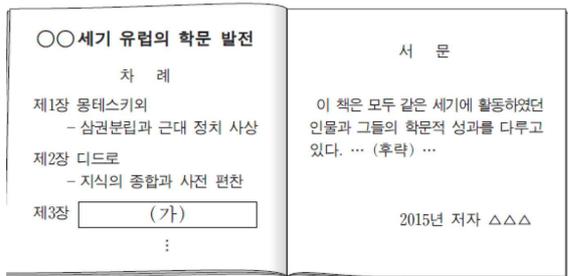
제〇〇호	유럽사 신문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과학 · 수학의 인기와 새로운 풍속		
<p>최근 파리에선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두 여성의 이야기가 화제이다. 이들은 과학과 수학에 매료되었다. 한 명은 배우자의 조건으로 렌즈 제작 기술의 습득을 요구하였고, 다른 한 명은 적분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랑 후보를 차갑게 외면했다고 한다.</p> <p>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수학에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되었다. 게다가 이웃 섬나라의 어떤 인물이 모든 물체의 운동을 수학적 법칙으로 설명한 『프린키피아(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을 써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니, 이러한 현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p>		

- ① 방법서설을 저술하였다.
- ② 만유인력 법칙을 주장하였다.
- ③ 종의 기원을 통해 진화론을 발전시켰다.
- ④ 신 기관(노복 오르가눔)에서 귀납법을 설명하였다.
- ⑤ 화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운동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03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수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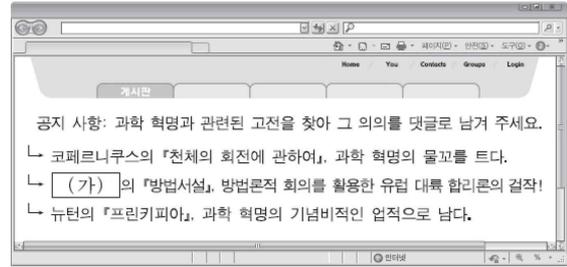


- ① 콩트 - 실증주의 사회학
- ② 스미스 - 자유방임과 고전 경제학
- ③ 랑케 - 사료 비판과 과학적 역사관
- ④ 데카르트 - 연역적 사고와 근대 철학
- ⑤ 베살리우스 - 인체 해부와 근대 의학

04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6월 모의평가]



- ① 백과사전을 편찬하였다.
- ② 연역적 탐구 방법을 중시하였다.
- ③ 노뭉 오르가눔(신 기관)을 저술하였다.
- ④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였다.
- ⑤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 독일 관념론의 기틀을 마련하였다.